NOBLIAN

THE SHILLA

ISSUE 156 / JULY / 2013

COLLOQUIAL ART

EDITOR AHN SANGHO
PHOTOGRAPHER JOUNG JUNTAEK
COOPERATION KUKJE GALLERY(82-2-3210-9885)

At a time where attention to oral communication is diminishing, there is a writer who has brought it back to life. This is his exclusive form of colloquial art.

PROFILE

노충현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5년의 개인전 〈살풍경〉을 시작으로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통해 〈살풍경〉, 〈자리〉, 〈실밀실〉 등의 연작을 선보이는데, 도시 속 메마른 풍경을 재현하며 상실의 정서, 공간의 장소성, 제도적 관습 등과 같은 사회적인 발언을 문학적인 정서로 표현하고 있다.

The title of the exhibition, <Prosaic Landscape>, depicts a central theme based on the artist's emotional experiences in the ordinary and tranquil landscapes found in and around the corners of Seoul.

꽤나 우중충한 저녁이었다. 늦은 오후부터 장마가 예고되어 있었지만 아직 빗발이 내리지 않았다. 그 탓에 거리는 잿빛이었지만 움직이는 사물은 더 또렷했다. 마치 색이 바래서 뿌옇게 느껴지지만 형태는 또렷한 노충현의 풍경화 같았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국제갤러리 앞에 선 노충현은 갤러리의 주차 관리 아저씨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그들이 자신의 작품을 봤다면 어땠는지 평가를 듣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를 처음 만난 게 인터뷰 사흘 전인 〈살풍경〉 전시 오프닝 직전이었는데, 손님맞이 준비로 갤러리 안을 정신없이 오가던 그때보다 지금은 확실히 여유를 찾은 것 같았다. 웃음과 말투에도 소탈한 여유가 묻어났다. 그에게 자신이 전전긍긍하는 이유와 자신의 어법을 찾았던 시간, 의도와는 다르게 담긴 그림 속의 정서, 회화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들어봤다.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노충현의 개인전 〈살풍경〉을 보면서 시인이자 건축가 함성호의 산문집 〈허무의 기록〉 서문이 떠올랐다. "기억을 닫고, 나는 써야 한다. 푸른빛이 내 빈 손목을 꺾고 저도 같이, 또 푸른 풀섶에 쓰러져간다. 나도 간다. 이 길은 어디를 향해 있지 않다. 나는 강변에 있다. 저무는 들녘에 있고 저 언덕 너머의 새벽에 있다. 나는 산개해 있다. 기억을 닫고, 나는 써야 한다. // 쓴다는 것은 기억을 닫는 행위다. 기억이 어딘가로 향해 열려 있을 때 쓴다는 행위는 오히려 닫히고 만다. 쓰는 행위를 열어놓는다는 것은 새로운 흔적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새로운 길이다. 홀로 가는 새로운 여행이다. 기억을 닫는다." 노충현의 〈살풍경〉을 보면 그도 길을 걷는다. 한강의 산개한 여러 장소에서 걷다 멈추기를 반복한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다. 사진에서 화폭으로 옮겨진 풍경 속 긴 그림자를 보면 그건 사람의 발길이 닫기 전의 이른 새벽이거나 대부분이 빠져나간 느지막한 오후의 한강변이다. 또는 시기적인 연유로 더는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게 된 장소의 흔적이다. 그리고 자신이 찍은 사진으로 머무른 자리의 기억을 연다. 붓을 드는 순간은 반대로 그가 머물렀던 기억을 닫는 행위다. 그리고 그 붓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 써나간다. 그 붓은 흰 눈발이 되어 점점이 캔버스 위에 흩뿌려진다. 그 눈은 편의점 정문 앞 계단에 내려앉고, 자작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에 날리며,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 위로 떨어진다. 캔버스라는 2차원적 공간에 입체감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눈발의 입체감에 의해 그림은 노충현만의 정서가 드러난다. 그건 아련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생생한 풍경이다. 몹시 쓸쓸하고 고요한 정경이란 의미를 지닌 '살풍경'이란 단어가 이를 압축해준다.

그가 눈 내리는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기 전까지 눈은 회화에서 상투적인 풍경에 속했다. 그리고 그 진부해진 풍경을 요즘 시대의 감성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전전긍긍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작업이 막힐 때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작업실에 머물면서 혼자 '전전긍긍'하죠. 눈 내리는 풍경도 처음에는 잘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화폭에 담아야 하는데 어떡할지 막막했죠. 마치 글쓰기의 문체와도 같은 문제인데 이 문체를 의식하지 않으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없어요." 붓을 캔버스에 직접 찍어서는 실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무작위적인 느낌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는 데 4~5개월이 걸렸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성근 붓으로 물감을 타 뒤에서 붓으로 뿌리기 시작했다. 앞에서 뿌리기도 하고 슬쩍 문지르기도 한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눈이 나온다. 노충현만의 회화적 문체인 것이다. "어떤 표정을 잡아내는 시선과 그 물질을 담아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Utilizes various ways to approach his subject in his series <Snow>. Much like Ahn gyeon's <Paradise in a Dream>, Roh simultaneously displays a space in reality and one that is a fantasy in one artistic depiction.

는 지금의 시간이 중요하다. 전시를 열기 전까지가 기존의 시선을 영그는 시기였다면, 전시가 시작된 직후는 모내기를 위해 땅에 수분을 충분히 적시는 탐색의 기간이다. 방법은 걷기와 사진 찍기다. 직접 두 발을 움직이는 시간과 공간, 이를 박제한 사진이 언젠가 불특정한 관념이나 기억의 장소로 거듭나 화폭에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 순간을 즐긴다. 사진과 머릿속의 상상을 시험해보는 습작 기간을 가장 좋아한다. 익숙한 것을 반복적으로 그려내는 방법도 나쁘지 않지만, 다른 소재나 풍경의 질감은 늘 스스로를 제자리에 멈춰 있지 않게 한다. "살풍경 초기에는 가을을 그렸어요. 붓으로 화면을 긁었죠. 가을은 스산하고 모래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의 살풍경은 장마가 온 뒤의 '여름'과 스산한 '가을', 눈이 내리거나 내린 후의 한적한 '겨울'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봄의 특징적인 표정은 찾지 못했다. 이미 두 번째 동명의 전시를 연 그에게 만약 다시 한 번 더 〈살풍경〉이라는 전시가 열린다면, 어떤 '봄'이 완성됐거나 또 다른 차원의 살풍경을 발견한 덕분일 것이다.

이번 전시를 소개한 자료에는 "2005년 첫 개인전 〈살풍경〉이 서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의 삶에 미쳤던 상실의 정서를 부재의 풍경으로 담았다면, 그 뒤 2006년의 동물원 〈자리〉 연작은 아무 동물도 없는 우리를 그림으로써 정체성이 모호한, 흡사 근대성이 스쳐 지나간 텅 빈 '자리' 같은 공간을 표현했다. 그리고 세 번째 개인전 〈실밀실〉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적 시간이 지닌 공간의 모습을 회화로 기록함으로써 작가 개인이 지나온 역사에 대한 소회를 다루었다"고 나온다. 확실히 풍경 속에 있는, 그것도 특정 주인공이 없는 풍경으로서의 풍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물이 없는 동물원을 그리면 사람들이 어디를 그린 거냐고 고민할 거예요. 실제로 감옥을 그린 거냐, 목욕탕을 그린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죠. 빈 동물원은 현대의 거주 공간과 같아요." 건물이 낡아 재건축 직전의 집이거나 돈을 좇아, 학업을 좇아 사는 이가 모두 비운 집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빠져나가는 공간은 그저 자리만 남는다. 한 가지 역설적 부분은 그가 이 빈 공간을 그릴 때는 상당히 생생한 풍경을 그리려고 한다는 점이다. 본인도 "결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것 같다"며 웃었다. '살풍경' 연작이 서울이라는 공간, 특히 한강에 국한된 것은 현재 서울의 삶이 웃을 수 있는 삶은 아니라서다. 그건 예술가의 윤리 의식이 조금 작용한 결과다. 실제로 작품은 정치적으로 읽히기도 하거나 때로는 아무런 의도도 발견할 수 없다. 이런 모호한 공간은 결국 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와 모습을 담아내려고 한 까닭이다.

전시 오프닝 때 만난 계원예술대학 유진상 교수는 노충현에 대한 칭찬을 길게 늘어놨다. 실제로도 그는 설치미술과 이론적 철학이 주를 이루는 현 세태의 화단에서 주목받는 몇 안 되는 젊은 현대 회화 작가다. 하지만 주목받는 작가이지 아직 컬렉터의 구미에 맞는 작품이 양산되는 상업 미술 시장에서 노충현은 그저 '그 작가'에 불과하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그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삼청동에서 인사동으로 같이 걸었다. 그때의 이야기가 더 즐거운 것 같다. 어느새 거리를 걷던 인물들이 하나 둘 골목에서 지워졌다. 그리고 그와 나눈 이야기만 그 공간에 오롯이 남았다.N